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말할때면 찬미와 감사 존경과 기쁨에 가득 차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빛나는 이를 상징하는 이름인 리안(LIAN)으로 불렸고 모두가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천계에서든 인간계에서든 모든이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녀또한 그들을 사랑했다.

자주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쳐 있는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찾아갔다. 삶에서 여신 리안을 만난 이들은 입이 닳도록 그녀를 찬양했다. 그녀의 신전에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무녀들이 사람들을 반겼고, 사랑과 빛을 상징하는 그곳은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던 항상 미소 짓고 있었고, 그걸 본 신과 인간 모두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

그런 그녀에게 한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성실하게 사는 아이였고, 외로워 보였지만 한편으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묘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소년이었다. 리안은 보름달이 뜬 어느 날, 신전에서 봉사를 끝내

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년 앞에 나타났다. 놀란 소년은 그녀를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리안은 다른 이들을 대하듯 미소 짓고 있었다. 자신을 쳐다보는 소년이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려나 싶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 마치 여신인 자신을 어린 소년이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년은 여신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본 그 어떤 분보다 아름다우세요.”

여신은 안심했다. ‘역시 소년들이란.’ 하며 그녀가 인사를 건넸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기특해서 내려왔어요.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요.”

소년은 너무 기쁘다며 다 보고 계셨구나 하며 방방 뛰었다. 그리고는 아까의 순수함과 다른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런데 여신님 여신님은 어두운 밤속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신가요?”

여신은 아주 잠시였지만 자신이 정말 오랜시간동안 지어왔던 ‘아름다운 미소’라는 가면에 금이 가는걸 느꼈다.

그리고는 정말 빠른속도로 다시 미소를 입에 머금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생각은 해본적없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는군요 혼자서는 자주 웃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전을 택했나요? 다른 여러 신전도 많았을텐데요 거리도 멀기도하고”

소년이 부끄러운듯 조금은 귀여움을 가진 장난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밤이 무서워서요 그런데 빛의 여신님을 모시면 어
둠이 이제 무섭지 않아질까하고...”

여신은 그때 자신도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항
상 짓고있던 우아한 미소가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며
웃었고 소년도 그녀를 보며 머쓱한 듯 따라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정말 자유로움을 느꼈고,
정말 오랜만에 대화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여신은 어린 소년이 마음에 들어 대화를 이어갔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마음을 지니고있네요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이 말을 전한 여신은 소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눈을 맞추고는 천계로 올라갔다.

소년은 방금 지나간 기적을 겪고 나서 신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위해 신들의 언어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다. 물론, 그건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이야기지만.

다시 천계로 돌아온 리안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영겁의 시간을 살았던 그녀에게 한시간도 안되는 시간은 찰나였지만, 방금의 대화는 그 어떤 대화보다 밀도가 높았기에 그녀의 궤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항상 숭배받고 찬양받는 존재지만 만약 신도들이 나를 숭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거지? 나의 이 꺾대기를 다 벗어던졌을때 그안에 남은 나 라는 존재가 남아있긴 한가?'

그때부터 그녀는 다른 신들과 회의를하고 축제를 즐길 때도, 예전처럼 즐겁지 못했다. 조금씩 조금씩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에서 죽어있는 조각상이 되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끔찍한 공포심을 느꼈다.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친 후, 그녀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타인의 평가나 숭배 없이도 존재하는 진짜 '나'를 찾기로 진짜 자아의 뼈대를 찾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권위를 버리고도 존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보필하는 천사들에게 '3일이 지나도 내가 오지 않으면 지혜의 신과 달의 여신에게 내가 사라졌음을 알리라'는 말을 전한 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샘물이 있다는 지하세계(명계)로 향한다.

명계로 향한 그녀는 적잖게 당황했다.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를 숭배하지 않았고, 숭배는커녕 투명스러움과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자신의 권위가 이곳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크나큰 두려움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다고 느낀 그녀는 지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의 물은 간단했다. 가장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만나는 샘물이 있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7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각각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녀가 가진 권위를 하나씩 내려놓아야 했다.

그녀는 첫 번째 문 앞에서 모든 이에게 찬송받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려놓았다. 두 번째 문 앞에서는 신전 무녀들이 바치던 찬양을 충족하기 위해 지어내던 완벽한 목소리를 내려놓고 침묵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가 찬양해 마지않던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황금 관을 내려놓았다. 권위를 내려놓을수록 그녀는 점점 투명해졌고 천계에서 가져온 빛은 사그라들었다.

문을 통과할 때마다 칼날에 피부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마침내 7번째 문을 지나 가장 깊은 곳, 샘물 앞에 도달

했을 때 리안의 뒤에서 그림자가 몸과 분리되었다. 자신이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비루하고 찌질하며 상처받기 두려워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그림자'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이게 나라고? 신인 내가, 저토록 보잘것없는 그림자였던 말인가?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그녀의 다리를 떨게 했다. 저건 내가 아니라 믿고싶고 또 천계의 찬란한 승배가 그리워질 찰나, 그녀는 문득 소년이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어두운 밤 속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신가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천천히 껴안았다.

차가울 줄 알았던 그 아이는 놀랍게도 그녀의 체온과 똑같이 따뜻했다.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 껴안는 순간, 리안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나'는 숭배받는 여신이 아니라, 이 비루한 상처를 가진 그저 한 존재였음을.

샘물 앞에 명계의 신이 서 있었다.

“그 샘물은 생명의 샘물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샘물이기도 하다. 진짜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체험해야 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마주했으니, 모든 권위를 챙겨 다시 천계로 올라가도 된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리안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자신을 알고 싶었다. 두려웠지만 샘물을 들이켰고, 이미 투명했던 그녀의 몸은 완전히 투명해져 급기야 사라졌고, 인간계에서 '지옥'이라 부르는 어느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자신을 마주하는 공간이었다.

첫 번째 지옥은 인정 욕구로 자신을 잃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 모두가 리안을 무시하고, 머리에 물을 붓고 뺨을 때리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리안은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어?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잖아? 이게 두려워서 평생 진짜 나를 숨긴 거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며 괴롭힌 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려던 찰나, 그녀는 잠에 빠졌다.

그리고 잠이 들고 잠에서 깨니 다음 방으로 넘어갔다.

그곳에서는 리안은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다. 그곳에서는 세 갈래길이 있었고 사람 세명이 다 투고있었다, 그들에게 리안은 보이지 않는듯했다. 한

방향은 안전한 길이었고 한 방향은 막다른길 한 방향은 절벽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다투었고 가장 현명을 말했던 안전한 길을 가자는 사람과, 조금 투박한 언어를 쓰며 막힌길로 가자는 사람, 그리고 가장 목소리가 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절벽으로 가자고 말하며 싸웠고,

항상 사람만 바뀌어서 3명씩 찾아 왔지만 항상 절벽으로 가는 길이 이기는 상황을 그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지켜봐야만했다.

그리고 무력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리안은 생각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간다 생각해서 내 이성을 억눌렀어. 그냥 참았지. 하지만 나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 당신의 길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그 끝에 정답이 없을 수도 있음을. 그냥

웃고만 있는 게 아니라, 부여받은 이성을 현명하게 써야 했나 봐.’

그리고 딱 때마침 또 세사람이 찾아왔고 그들은 전에 찾아온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또 자신들끼리 싸웠다, 셋이서 싸우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듯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판단을 했다. 뚜벅뚜벅 리안이 있는 방향으로 찾아와서는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세 방향중 어디가 맞는 길인지 알고계신가요?

리안은 제가 보이시냐며 대답했고 현명한 사람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니요 생각해보니 안보이네요 이리면서 장난을쳤다.

리안은 눈물을 닦아내며 따뜻한 표정으로 세 사람에게 말했다.

가장 오른쪽 길은 안전해보여도 끝에 구덩이같은 절벽이 있어요 풀이 그걸 가리고있어서 인지하기도 전에 다 빠져서 절벽밑으로 떨어질거예요.

그리고 가장 왼쪽길은 잘 포장된 길이지만 길만 따라가다보면 미로같이 길게 펼쳐져있고 모든 길은 끝이 막혀있어요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중간길은 조금 울퉁불퉁해보이고 길도 좁지만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갈수 있을거예요.

이 말을 전하니 방금전까지 목소리가 크던 절벽으로 가자던 사람은 내심 불쾌한듯 했지만 그들은 감사하다면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갔다.

사실 지옥은 벌을 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모습을 죽기전이라도 마

주하고 미련을 갖지 않기위해 존재하는 어찌면 누군가의 선물같은게 아닐까하고 생각하고있었다.

그 순간 눈앞에 자신의 이름 'L-I-A-N' 이 나타났고 나머지 글자들이 부서지고 사라져 'I' 만 남았다. 결국 남들이 지어준 빛나는 존재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마주하는 '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억눌렀던 감정들도 다 마주했고 권위와 그림자를 다 마주 하고 왔기에 몸이 완전히 투명해지는걸 느끼며 이제 정말 죽는거구나 아니 죽는게 아니라 이젠 정말 별로 다시 돌아가는구나를 느끼던 그 찰나에, 어느 두 존재가 빠르게 다가왔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아니 별로 돌아가는구나 싶던 찰나, 지혜의 신과 달의 여신이 보낸 천사들이 다가왔다. 하나는 인간이 되는 물약, 하나는 다시 여신이 되는 물약이었다.

리안이 인간의 물약을 마시고 여신 물약을 품에 껴

안은 채 눈을 감자, 명계의 깊은 어둠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죽음이자 동시에 거대한 자궁이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더 이상 명계가 아니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존재했지만 잊혀진 사람들의 흔적'을 모아 신의 숨씨로 빚어낸, 이름 없는 그릇 그 그릇으로 자신이 다스리던 인간계로 돌아와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 호숫가가 있었고 호숫가의 물은 거울처럼 맑았지만, 그곳에 비친 얼굴은 낯선 타인의 것이었다.

리안의 화려했던 흔적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리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빚어진 존재임을 실감했다.

그 호숫가는 사람들이 살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이주해 갔기에 버려진 판자집이 많았

고 그녀는 판자집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가슴 속에 심장이 되어 뛰고 있는 '여신 물약'의 온기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버린 권위의 잔재이자, 동시에 언젠가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는 신성의 찌꺼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결코 마시지 않았다. 그 온기는 이제 그녀가 이 거친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연료였다.

그녀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길 위에 있는 자라는 의미의, R-U-A (루아).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이름 어찌면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루아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그때 신전에서 울려 퍼지던 찬양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이제 그 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전의 화려한 조명 대신 호숫가의 차가운

달빛을 택했다.

그녀는 이제 '승배'가 아닌 '생존'을 배웠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땀감을 구하고, 흠을 만지고, 남들이 버린 물건들로 환자집을 수리하며 루아는 신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거친 숨소리를 내뿜었다. 손이 베이기도 하고 식량을 구하지 못해 배고픔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진짜 살아있음을 느껴갔다.

그리고 루아는 과거 자신의 신전에서 무녀로 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급무녀가 되었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했고 빨래도 하며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다.

누군가의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일이었지만 루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얻는 행복이 정말 소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를 괴롭히는 무녀들을 보았다.

괴롭힘 당하고있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구색 피부를 가졌고 맑은 눈을 가지고있었다. 그리고 루아에게 자신이 여신이였을때의 기억이 스쳐지나갔고 저 아이의 이름을 포함해 모든 상황이 기억났다.

과거의 어느 날 여신의 변덕으로 동양으로 갔던 그녀는 전쟁에서 패배하기 직전의 마을에서 한 여자아이를 그 부모님들이 아무도 찾을수없는곳에서 다음날까지 아무 소리내지말고 숨어있으란 말을 전하며 숨기는걸 목격한다. 역시나 그 마을은 패배했고 모든 것이 불에 탔다.

다음날아침 마을로 찾아온 그녀는 모든것이 불에타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마을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걸 발견했다 물론 그녀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게 아니란걸 알수있을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앞에 현실을 믿고싶지 않았다.

웃으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불렀고 흔들었다 일어나

라며 같이 놀러가자며 나랑 열매 따러가기로 하지 않았나며 그녀의 웃음은 조금씩 조금씩 깨어져갔고 더 이상 참을수 없었던 그녀는 모두가 잠들어있던 그곳에서 펄펄 울었다 몇시간이고 울던 그 아이는 자신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는듯이 지쳐 잠에 들었고,

그걸 가만히 보고있던 여신 리안은 인간계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본인의 신념을 처음으로 어기고 그 아이를 구했다.

그녀를 품에 안아 자신이 사는곳으로 데려갔고 혹시라도 그녀가 깨지않게 날아가던 도중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급 무녀들에게 발견되어 여기서 생활할수있게 상황을 통제해서 그녀가 정착해가는걸 조용히 지켜보고 안심하며 그녀를 잊었가고있었다.

그렇게 잘 지내는줄 알았던 그녀는 행동과 피부색이 다른 이유로 모두에게 경멸의 시선을 받고있었고 트집을 잡혀 혼나고있었다.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 꿈틀거리는걸 느낀 루이는 그녀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곤 그녀의 뺨을 때리려던 하급무녀의 손목을 잡고 한번 쳐다보고는 그 소녀를 보며 이야기했다.

“내가 늦어서 미안해 나랑 같이 가자.”

그녀의 이름은 한(HAN)이었고, 그녀는 당황해서 루이를 올려다봤다.

“저를 알고있으세요?”

루이는 웃으면서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않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 무리들에서 데려왔다.

여느 고아출신 무녀들이 그렇듯 8명 혹은 16명이 좁은 방을 함께 썼고 그녀또한 거기서 살았다.

루이는 한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왔다.

한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이것저것 물으려했지만 루아의 따뜻한 손과 다정한 눈빛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곳에 온 이래 처음으로 안심하는 마음을 느끼며 루아를 따라갔다. 루아는 자신의 집에 한을 초대했고, 남이 버리고 간 판자집에 남들한테 빌린 도구들을 통해 나무를 때고 그걸 덧붙여서 만든 집이라 그리 좋은집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자기에는 충분했고 장작은 충분했기에 요리도 할수있었다.

그녀는 여러 이야기를 하지않고 한을 위해 따뜻한 스프를 끓였고, 호수에 넣어둔 통발에 꽤 큰 물고기가 2마리 잡혀 있었기에 하늘에 감사를 올리고 둘중 큰 물고기를 손님에게 조금 작은걸 자신이 먹으며 그저 아무말 없이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다.

처음에 긴장하던 한은 음식을 먹고 자신을 이따금씩 다정하게 쳐다보던 루아의 시선이 따뜻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편하게 음식을 먹고 장작불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었다. 루아는 그녀의 옆으로

가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서 미안했기에 그녀의 머릿결을 쓰다듬어주며 잠들어있는 그녀에게 조용히 사죄를 구했다.

그리곤 한은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녀는 한을 조심스럽게 안아 자신의 잠자리에 눕히고 자신은 옆에서 잠이 들었다.

한은 자기가 잠든것도 모른채 정말 편안하게 정말 긴 시간을 잠에 빠져들었고 오후가 다 되어가는시간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깬다.

일어나니 그녀는 없었고 어떻게하냐며 학습된 불안함에 어쩔줄 몰라하고있었다.

그때 루아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며 산딸기 블랙베리 야생 열매와 호수에서 잡은 민물조개같은걸 따왔고, 허드렛일 담당이기에 신전에서 쓰고 남은 음식인 딱딱해진 호밀빵같은것을 들고왔다.

그녀는 잘 잤냐며 짧게 물어봤고, 한은 감사히 잘

졌다고 말도없이 잠들어서 죄송하다며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굳어있었다.

루아는 얇게 웃고는 맑은 표정으로 여기 와서 열매들을 씻어서 약한불에 끓일건데 도와줄수있냐며 잔불에 딸기와 블랙베리를 섞어서 조심스럽게 끓이는 법을 알려주고 한이 미안하지 않게 소일거리를 시켜줬다.

다 완성되니 루아는 만든 빵과 어제 먹다남은 스프조개와 잼을 준비했고, 소박한 나무 그릇에 음식을 차렸다.

한은 그냥 받아먹는게 미안하며 이걸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말하니 루아는 혼자먹으면 많은데 버리기 아깝다며 웃으며 먹고가라했다.

정말 오랜만의 다정함에 잠시 슬퍼진 한은 감사히 먹고가겠다며 시키실일 있으면 시켜만달라 말했다.

루아는 그러면 맛있게 먹고가기를 시킬테니 맛있게 먹어달라고 말했다.

은근히 기대하던 한에게 잼을 얹은 빵을 줬고 처음 맛보는 달콤함에 방방 뛰며 너무 맛있다고 여느 그 나이대의 청소년기의 아이들처럼 신나했다.

굳어있던 모습에서 기쁘게 웃고 맛있어하는 한을보며 기쁨을 느꼈고 스프에 찍어먹는 빵도 민물조개도 다 맛나게 먹어주는 그녀를 보며 루아는 여신일때는 단 한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함께 호숫가로가서 설거지를 했고 두 사람은 함께 호수 주위를 말 없이 걸었다.

한은 루아의 옆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말했다.

“저를 왜 데려오셨는지 여쭙봐도 괜찮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해서요.”

루아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요 마음이 시켜서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 지켜주고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은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걸었고 루아는 조심스럽게 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혹시 그분들과 함께 사는건 괜찮으세요? 마음이 불편할것같던데”

“네..! 당연히 편하죠”

한은 그냥 밝게 말하려다 루아에게는 솔직하고싶은 마음이 들어 솔직히 말했다.

“사실은 아니요... 처음엔 말도 할줄 몰랐으니까 언니들이 많이 답답했나봐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잘 안되나봐요..”

루아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면 저희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혼자살기 외롭기도 하고 또 왜인지 모르겠지만 지켜주고싶은 마

음도 들어서요 부담갖진 말아요.”

루아의 배려심과 뭇지모를 따뜻함에 한은 감사하며 같이 살았고 루아에게 편하게 말해달라며 자신도 언니로 부르겠다 말했다. 루아는 좋다며 짐 싸서 언제든 오라고 말하고 둘은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났고 어두웠던 한은 조금씩 밝아져가며 애교도 많아졌고 루아도 그런 한에게 장난도 치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갔다.

그리고 루아는 그 평온이 익숙해졌다 마치 그 평온이 영원할줄 알았던 사람처럼.

밝아져가던 한은 조금씩이지만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는듯했다. 표정이 어두웠고 일이 힘들다며 미안하다고 빨리 잠들었다 이상했지만 더이상 물을수없었다 그냥 그 아이의 자유를 지켜주고싶었고 괜찮아질 거라 믿었기에.

어느 날 밤이 늦어도 한이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루아는 호숫가로 달려갔다. 어둠 속,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다행이다, 싶어 다가간 순간 루아는 발걸음이 굳어버렸다.

바닥에는 비누 거품과 찌그러진 비누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한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살갓을 벅벅 닦아내고 있었다. 붉게 짓물린 피부에서 하얀 거품이 핏물처럼 배어 나왔다.

“오지 마요!”

루아를 발견한 한이 악을 썼다. 아이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무녀 언니들이 그랬단다. 우리는 항상 미소 지어야 하는데, 한은 힘들면 힘든티가 나고 슬프면 슬픈 티가 난다고. 피부마저 하얗지 않아서 너 같은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여신님이 욕을 먹는다고.

“비누 열 개를 다 쓰면 하얘질 수 있대요. 나도...

나도 여신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대요.”

한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가 과거 마을이 불타던 날 보았던 그 표정이었다. 현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할 때, 아이는 자신의 영혼을 죽여 그 미소를 짓곤 했다. 지금 한은 자신의 피부를 지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다.

“아니야, 한아.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언니가 뭘 알아!”

한이 처음으로 내게 고함을 질렀다.

“피부도 하얗고 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나에 대해 뭘 알아 나는 여신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하난말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달려가 아이가 으스스하게 안았다. 아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처럼, 내 품에서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이의 차갑게 짓물린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이 상처투성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내가 여신이었을 때 내린 그 어떤 신탁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명임을 깨달았다.

나는 아이를 깨끗이 닦아내고 집으로 데려왔다. 잠든 아이의 곁에 누워, 온몸이 젖어 덜덜 떨리는 한을 내 팔로 단단히 감싸 안았다.

그리고 미안함을 가지고 한에게 물었다.

“너는 여신님을 원망하지 않아?”

한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지으며 말했다.

“저희 마을이 불바다가 되고 모두가 죽었을때 여신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전혀 밉지않아요 그분이 아 니었음 언니도 만나지 못했을걸요.”

그리고 덧붙인 한의 말은 루아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여신님은 웃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죠?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헤헤.”

아이의 그 ‘헤헤’ 하는 웃음소리는 여신 시절 평생을 관통하던 ‘가면의 웃음’과 똑같았다. 자기 파괴적인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루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이성의 끈이 아니었다. 오랜기간 쌓아 올린 ‘여신 리안’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루아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한의 짓물러버린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루아의 눈동자에서 그동안 세상의 모든 이들이 찬미했던 ‘성스러운 빛’이 사라지고, 대신 시커먼 분노와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이제 루아는 더 이상 고귀한 여신이 아니었다. 한의 아픔을 자신의 살점으로 느끼는, 피 끓는 인간이었다.

루아는 한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붉은 흉터가 루아의 뺨에 닿았다. 루아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신의 눈물이 아니라, '어머니'이자 '친구'이며 '혁명가'의 눈물이었다.

머리를 매만져주는 손길에 한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루아는 그러지 못했다. 세상에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기에 모두가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간다 생각했던 그녀는 그 생각이 틀렸음을, 세상에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음을 적어도 자신이 만든 그 오답을 바로잡는일이 지금부터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이 아이를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리곤 잠든 한의 곁에서 루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빛이 판자집의 틈새로 스며들어, 그녀의

손등 위에 차갑게 맺혔다.

루아는 달의 여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게 힘을 빌려주세요. 신전의 오답을 바로잡고, 한을, 그리고 그와 같은 아이들을 구할 힘이 필요합니다.”

달의 여신은 안타까운 눈으로 루아를 내려다보았다. “천사들을 너의 양쪽에 보내줄까? 아니면 신의 권능을 다시 빌려줄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감정을 뒤흔들 재력과 힘을 원하는가? 무엇이든 말하렴. 자존심 강한 너가 무릎을 꿇을 정도면 내가 들어줄테니.

루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저는 그것 하나면 됩니다.”

달의 여신이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넌 항상 내가 줄 수 없는 것만을 요구하는구나.”

여신은 천천히 루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창조주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신조차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숨겨두었지. 리안, 아니 루아 네 안을 들여다보렴. 한을 보며 무엇을 느꼈느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찢어질듯한 미안함입니다.”

“그 분노의 본질은 무엇이지?”

“이대로 방치한 제 자신이 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상처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루아는 얼어붙었다. 정곡을 찢린 자만이 낼 수 있는 떨림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던 빛이 점차 선명한 ‘의지’로 응결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저는 수많은 한을 이 지옥에서 꺼내고 싶습니다.”

달의 여신은 리안의 손을 감싸 쥐며 미소 지었다. “축하한다, 루아. 이제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생겼구나.”

“사랑은 단순히 웃고 미소 짓는 것만이 아니란다. 소중한 것이 침해받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타오르는 힘 또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 용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세상에 전하려 할 때, 비로소 너의 영혼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지.”

루아의 가슴 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요동쳤다. 그것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안에서 터져 나온, 뜨거운 인간의 심장이었다.

“이미 깨어났구나, 루아. 그 소중한 것이 네 안에

있음을, 이제 네가 스스로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루아는 자신 안에있는 분노를 꼭 끌어안았다. 그건 세상을 바꾸기위함도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위함도 아니었다.

그저 가장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위한, 그 아이에게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선물해주기 위한 다짐이었다.

--에필로그--

이 소설은 자신의 수메르의 여신 이난나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7개의 문 앞에서 모든 권위를 벗어던진 그녀는 알몸이 된 채 자신을 만나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 그녀는 다시 살아나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 과정은 세상이 부여한 페르소나(가면)을 모두 집어던지고 자신을 만나는 스토리가 인상적이라 영감을 받아 소설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만든 이 세계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살을 붙여 결말까지 완성해 보려 합니다. 이번 기회를 만들어준 세현 님께 감사를 드리며, 읽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